

봄꽃만발 생동하는 기운

“4월엔 전남으로 오세요”

전남도, 추천관광지 선정
화순 동구리호수공원 등 4곳

전남도가 봄꽃이 만발하는 4월의 추천관광지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여수 하화도, 화순 동구리호수공원, 신안 임자도 톨립축제를 선정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 도심과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 3개 권역에서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10월까지 7개월 동안 정원 문화축제로 펼쳐진다. 총 3천500만 송이의 꽃이 계절별로 피고 지는 93개의 다양한 정원을 만나볼 수 있다.

차가 달리던 아스팔트 위에 조성한 잔디길 '그린 아일랜드', 꽃이 가득한 정원에서 하룻밤 보내는 '가든스테이', 동천벚길 위에서 정원을 둘러보는 '정원드림호' 등 다양한 돌풍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여수 하화도는 여수여객선터미널에서 1시간 10분, 연륙교로 연결된 백야도 선착장에서 30분이 소요된다. 꽃이 많아 꽃섬(花島)이라 불리는 하화도는 진달래, 짙레꽃, 유채꽃, 구절초 등 다양한 꽃으로 가득하다.

하화도의 5.7km 둘레길 '꽃섬길'은 해안선을

따라 섬을 한 바퀴 도는 산책 코스다. 절벽을 이어주는 출렁다리에서 탁 트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오랜 시간 파도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진 해식에 절벽과 어우러진 꽃밭 풍경은 사회관계망(SNS)에서 소문난 사진 촬영 명소다.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은 봄마다 벚꽃과 철쭉이 만개한다. 만연산 아래로 펼쳐지는 호수 풍경을 감상하며 수변 산책로, 맨발로 걷는 지압 보도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봄철은 물론 사계절 남녀노소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휴식 공간이다. 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 반려동물 예절(뱃티켓)을 지키며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행복한 산책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낮에는 봄꽃의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지고 밤에는 호수에 두들실 떠있는 보름달의 낭만적 풍경이 운치를 더한다.

신안 임자도 대광해변 일원에서 7일부터 10일간 '2023년 섬 톨립 축제'가 열린다.

8만7425㎡의 광활한 면적에 피어난 30여 종의 톨립과 풍자 조형물은 이국적 분위기를 연출해 이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려는 산객들의 발걸음이 때때로 끊이지 않는다. 애기동백 숲길, 톨피어리 동산, 아열대식물로 꾸며진 유리온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어린이 팔찌 만들기, 톨립 공예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과 싱하이밍(왼쪽) 주한 중국대사가 호남과 중국의 교류 방안, 한중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주한 중국대사-김여송 광주일보사 회장 환담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참석차 광주 방문...中-지역간 경제교류 등 의견 나누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참석차 광주를 찾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가 지난 7일 광주일보사를 방문해 김여송 광주일보사 회장과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싱하이밍 대사와 김여송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한·중 정세, 광주·전남지역과 중국의 우호 및 경제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 사이, 항일 독립운동의 동지라는 지정학적·역사적 동반자라는 표현을 써가며, 양국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김여송 회장은 지난 1992년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 한중 국교 정상화 회담 기자단으로 참석해 정상회담을 취재한 경험 등을 얘기하며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에 대한 역사와 과정 등을 소재로 환담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김여송 회장이 호남지역과 중국 간의 관광, 수출 등 경제 협력에 대해 가고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싱하이밍 대사는 광주 총영사관을 통해 협조할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고흥·영암 등 인구감소지역에 '청년마을' 조성

생활인구 유입 기대...전국 12곳 선정 6억 원씩 지원

고흥과 영암 등 전국 12곳의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마을'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공모해 12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정 지역은 세종시(연서면), 강원 홍천군, 충북 보은·진천·홍성·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남 고흥·영암군, 경북 영천시·고령군, 경남 의령군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첫째 사업비 2억원이 지원되고 이후 사업 성과 평가 후 향후 2년 동안 연 2억원씩 추가 지원된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 기회를 제공하고 일거기 실험, 지역사회 관계 맺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8년부터 3년의 시

범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매년 12곳씩 조성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61개 청년단체가 응모해 1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선정된 12개 청년마을은 와인, 스마트팜, 동물·자연 치유, 뮤지컬리지 등 지역마다 독특한 주제로 마련한 프로그램을 5월부터 진행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거리로 수익을 실현하면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유용 공간을 청년주거, 창업 실험, 공유 사무실, 커뮤니티 등 청년 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신규 청년마을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선배 멘토링, 성과공유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첫 시상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논란

개막식서 예술인들 폐지 주장...박 화백 "더 많은 후원·상 만들어야"

올해 첫 수상자를 발표한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이하 박서보 예술상)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일 열린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서는 박서보 예술상 절멸을 주장하는 피켓 시위가 벌어졌다.

박서보 예술상은 지난해 2월 박 화백이 재단에 "선배이자 예술가라는 동료로서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며 10년간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제정됐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첫 수상자로 '코 앵거리' 연작을 출품한 엄정순 작가가 수상, 10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이날 시위에 나선 예술인들은 전단지지를 통해 "평생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하며 4·19 정신에 침묵하고 유신정권과 1980년 민주화 운동을 외면하며 개인의 출세를 위해 살아간 사람"이라며 "박서보상 제정은 광주 민주화 정신을 먹칠하는 것이고, 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즉각 폐지하라"고 말했다. 이어 "오월정신을 기리고 민족문화를 창달하는 취지라면 오운상을, 국제적 문화 교류의 활성화라면 백남준 상을 제정하

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서보 화백은 8일 자신의 SNS에 전단지 사진을 올리고, "박서보 예술상이 광주비엔날레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1인시위가 있었다. 어떤 이견도 없는 것보다 훨씬 좋은 현상이다. 역사는 반동하며 발전한다. 하지만 이 주장의 프레임이 낡았고 대안의 현실성도 없다"고 적었다. 또 "더 많은 작가가 나서서 후원하고 상을 만드는 것이 비엔날레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며 제2, 제3의 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발전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가 오는 가운데 열린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국회의원, 구청장, 군수 등의 소개가 지루하게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미 광주시가 비엔나 소시지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통해 비엔날레를 희화화 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데 이어, 광주시장의 갑작스런 영부인 김건희 여사 개막식 초청 건이 이슈가 되면서 정작 광주비엔날레의 핵심인 전시에 대한 관심은 묻혀 버렸다.

/김미은 기자 mekim@

국회의원 총선 D-1년

▶1면에서 계속

민주당의 경선 룰도 살아있는 이슈다. 이 대표는 물론 지도부가 전략공천 등 인위적 물갈이보다는 현역 국회의원의 평가 등을 통한 시스템 공천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 공천은 총선을 앞두고 피할 수 없는 화두라는 점에서 권리당원 참여 확대 등 공천 룰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전체 현역 국회의원의 30%를 넘나드는 최소한 5~6명 이상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총선의 선택은 호남 정치권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지역 민심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물지마' 지지나 물갈이보다는 될 성 부른 중진을 키우고, 신진을 발탁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짜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정창시(20301-XXXXXX)
- 피후주소 : 목포시 북항주덕로 16(산정동)

피상속인 망 정창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3년단74호로 신청하여 2023년 4월 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과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4월 10일

- 상속인 : 김화분(JIN HUAFEN, 외국인등록번호 740517-XXXXXX)
- 국적 : 중화인민공화국
-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 50(용원동)
- 신고기간 : 2023. 4. 10. ~ 2023. 6. 20.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김화분의 주소

건설업 양도양수공고

가야오션주식회사는 전문건설업면허를 양도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 하오니, 이의가 있는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에 표시된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건설업의 종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평양 2020-06-02호
2. 양도예정일 : 2023년 05월 10일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예정일 : 2023년 4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4. 제출처 : 전남광역시 향남7로 6, 3층(도야동)
2023년 4월 10일

가야오션주식회사
전남광역시 향남7로 6, 3층(도야동)
대표이사 김용민

산행안내

4월 15일(토)

▲ **광주호산회** 4월 15일(토) (대구 비슬산 정공목재 A산행코스 + B트레킹코스 (전기차 이용)) 오전 06시 30분 중앙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7시 롯데백화점 07시15분 예술회관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